



3면

본문투 의회 윤관석·이성만 체포안부결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음 4월 25일) 제328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약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무더운 여름, 편백나무 숲 그늘에서 현장학습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2일 전주시 오송제 편백숲 그늘에서 현장학습에 나선 어린이들이 산책하고 있다.

### 전주시, 예산 2425억원 규모 추가 편성

## 민생 안정 · 경제 활성화 '중점'

#### 소상공 특례보증 · 전주형 공공배달앱 운영 기초연금 ·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 난방비 청년 지역정착 ·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등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42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8기 핵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2,425억원이 증액된 총 2조5,88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86억원(10.79%), 특별회계가 39억원(1.63%)이 각각 증액됐다. 먼저 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특

례보증 지원 21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79억원 △전주형 공공배달앱 운영 3억원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2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0억원 등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238억원 △노년일자리사업 24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3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여기에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4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원 △청년배입임대주택 공급 5억원 △청년 전세보

증금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35억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10억원 △음식물·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7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0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0억원 등 총 317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 57억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 10억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30억원 △전주부성복원 40억원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54억원 △월덕경기장 경기장 시설보수 10억원 △가르릉 조도 및 에너지 효율개선 18억원 △화산 치유의 숲 조성 9억원 △소수서비스 도입보조 160억원 △에코 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0억원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19억원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28억원 △완산철분 한빛마루 공원 조성 13억원 △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21억원 등을 편성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61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625억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1억원,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등의 세입을 활용했으며, 올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및 집행잔액 등 307억원의 예산을 조정해 사용키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 구제역 긴급접종 확인검사 강화

#### 전북도, 기존 농가당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 대상 농가 324곳 무작위 추출... 이달 말까지 검사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전북도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소, 염소, 돼지 등 가축 84만2,00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했고, 백신접종 3주가 되는 12일부터 확인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확인 검사부터 검사 두수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 지역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5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지만, 50마리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하고 있어, 이들 50마리 이상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도는 우선 기존 농가당 5마리를 채혈·검사하던 것을 16마리로 확대하고, 대상 농가 324곳도 무작위 추출한다. 또한, 채혈하는 개체도 농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방역관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4마리, 2세 미만 8마리, 5세 이상 나이 많은 암소

4마리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검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공수의 70명과 방역본부 방역사 49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 무작위 추출 농가 324곳을 6월 말까지 검사하고, 이번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50마리 이상 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9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을 80% 미만인 농가는 1차 500만원(2차 750, 3차 1,000)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백신을 즉시 재접종하고 4주 이내에 재검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은 동남아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와 백신접종이 미흡한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축산종사자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교육 및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일제접종, 돼지는 8주와 12주령 2회 접종 등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인접지역인 증평군 11개 농가에서만 구제역이 확인되고 이후 추가적인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김재훈 기자

### 도,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추진

#### 전문업체 방문 보일러 무상점검, 부품 교환 · 수리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1억 2,600만원 규모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을 무상점검하고 수리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홈닥터 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로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다. 신청은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및 지원 시기가 시군마다 상이해 접수가 진행 중인 시군(익산,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속한다면 해당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된 시·군은 사업종료 시까지 전문업체가 방문해 보일러를 무상점검하고,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원 세대의 난방시설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전문업체가 사전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호 전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가정의 난방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전북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승마체험과 관광은 장수의 지름길

# 장수에서 말 달리자!